

VOL

215

Together Ha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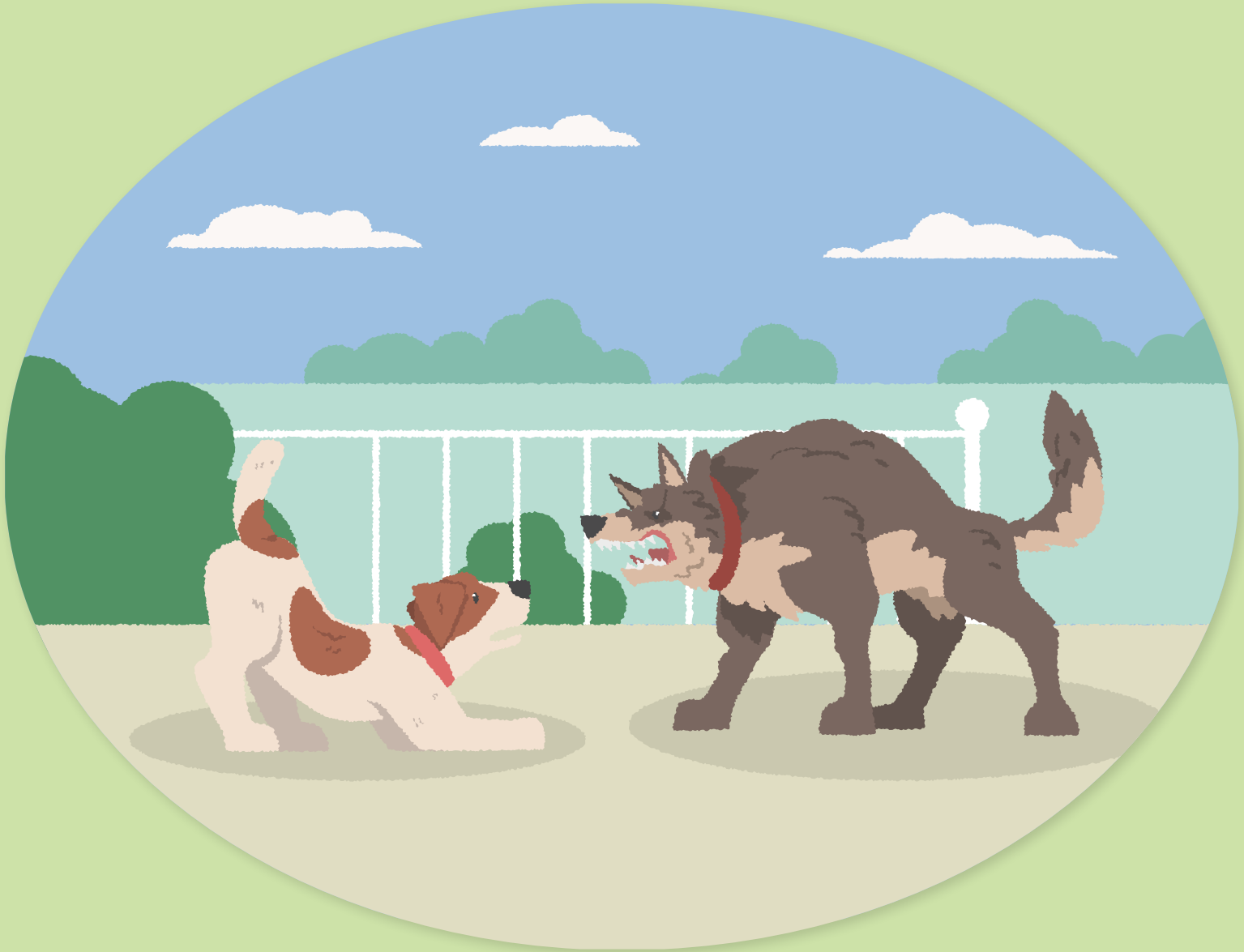
함께해요 하림



2024
04

언더독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
또는 약자로 연출된 주체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을 의미.



‘언더독’은 1948년 미국 대선 때 사전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에게
부동층 유권자들이 언더독인 해리 트루먼에게 동정표를 던져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독’이란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을 뜻하는 사회과학 용어로,
개싸움에서 아래에 깔린 개(언더독)를 응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됐습니다.

- 02 기획포커스
동물이 들어간 시사용어 소개
목차
- 04 기획기사
대한민국,
과연 치킨공화국인가?
- 07 리더's 칼럼
재경실장
김석민
- 08 대리점 탐방
함백유통
- 10 전국 닭 요리
Miyazaki Food
Quwanne
- 1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팀
- 14 하림인의 말말말
냉방시설 vs 난방시설,
인류에게 더 도움 되는 것은?
- 15 제품 이야기
봄철 입맛 돌아줄
매콤한 닭고기 제품 추천
- 16 하림 뉴스
2024년 3월
하림 주요 소식
- 22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 23 눈으로 보는 하림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Date of Issue
2024년 4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대한민국, 과연 치킨공화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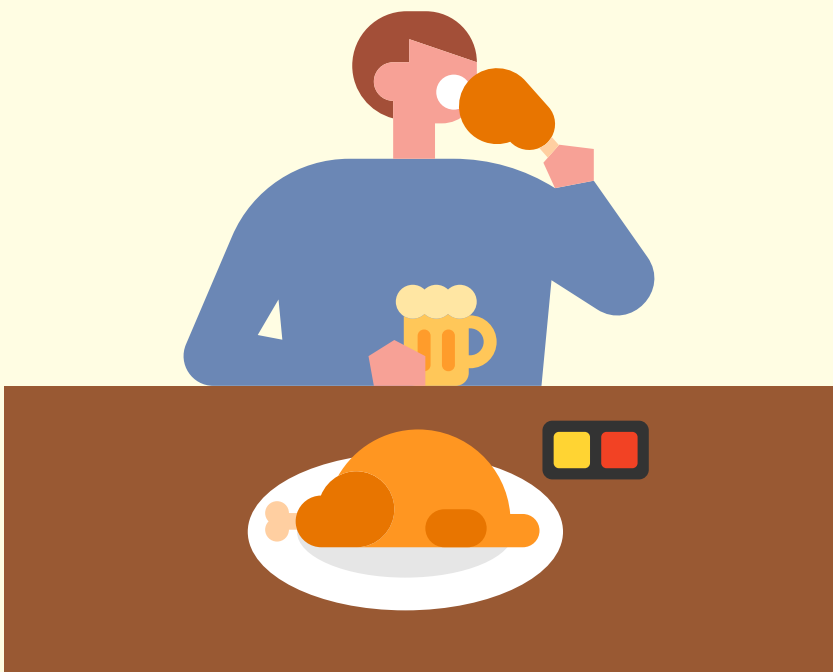
‘오늘 치킨 먹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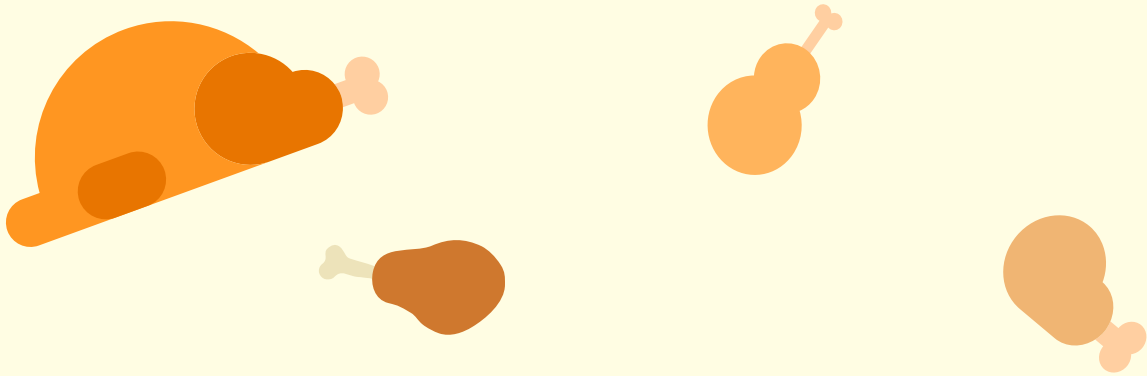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뱉게 되거나 듣게 되는 말이다.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치며들어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유난히 힘들고 지치는 날이면 바삭하고 뜨거운 치킨에 머리 깨질 듯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자연스레 생각난다. 월드컵, 아시안컵 등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치킨을 먹기 위해선 배달앱 주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야구장 내 인기 먹거리도 치킨, 날이 좋으면 남녀노소 모여드는 한강공원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것 역시 치킨이다. 우리의 일상에 치킨이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치킨 메뉴의 다변화도 눈에 띈다. 치킨 하면 흔히 떠오르는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이외에도 간장치킨, 오븐구이 치킨, 숯불치킨, 각종 시즈닝을 입힌 치킨 등이 끊임없이 출시되면서 고급화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흔히들 대한민국을 ‘치킨공화국’이라고 한다.

단어 그대로만 보면 치킨 가게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야 할 것 같고, 매일 같이 치킨을 먹어야 할 것 같다. 닭고기 사랑에 대한 열정만 큼은 대단하다. 그래서일까? 유독 우리나라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에 따르면 치킨 가맹점 수는 29,373개다. 여기에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치킨집까지 추산하면 한 집 건너 치킨집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에 세계도 같이 열광하고 있다. 최근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티브립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식메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전체 외식 메뉴 중 거래 건수 1위를 기록하며, 국적과 관계 없이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온라인 배달 주문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매장 역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K-치킨의 열풍에 힘입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앞다퉈 해외 매장을 늘리고 있다. 지난 1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 매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는 BBQ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교촌치킨은 7개국에서 70여 개, bhc와 맘스터치도 해외 진출에 나서며 K-푸드, K-치킨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된다. ‘한국은 치킨공화국이 맞구나!’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확인하면 ‘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에는 부족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탄수화물 섭취량 감소, 단백질 섭취량 증가 및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닭고기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31.8kg인데 반해 한국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8.8kg이다. 연간 64.9kg을 소비하는 이스라엘, 50.8kg을 소비하는 미국, 40여 kg을 소비하는 말레이시아, 호주, 브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치킨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소비 확대와 함께 품질 좋은 국내산 닭고기 자급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2002년 79.7%에서 2003년 85.9%로 높아진 뒤 2022년까지 80%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자급률은 77%로 2002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펼친 할당관세(0%) 정책으로 닭고기 수입이 사상 최대치(23만 4873t)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만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국내 육계 사육 농가의 생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농가의 생산 감소는 농가 소득 하락으로 연결되어 사육 농가가 도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은 지난해 5월 국내 닭고기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순살치킨 메뉴 일부의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다. 이후 지난해 12월 85개의 메뉴 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는데, 이 중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한 메뉴도 가격을 함께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브라질산 냉동육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원가는 내렸으나 가격은 국내산 닭을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이익증대를 꾀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수입된 무관세 닭고기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지 못했고, 국내 닭고기 자급률 80% 붕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산물인 닭고기.

일명 ‘치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 간식 단연 1위인 치킨과 더불어 삼계탕, 닭볶음탕, 찜닭 등 다채로운 맛으로 닭고기를 즐기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값싼 수입 닭고기가 아닌 맛 좋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증된 국내산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단순히 맛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해서 닭고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닭고기 산업 육성과 국산 닭고기 경쟁력 강화는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맞이할 식탁이 앞으로도 신선함과 고품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치킨공화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내산 닭고기를 향한 관심을 지속해야 할 때이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



‘프레쉬업’

신선 기준을 UP하면 맛의 기준이 UP된다. 하림만의 신선기준, 프레쉬업! 프레쉬업이 닭고기의 품질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자연실록 무항생제’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기능성 사료를 먹고 자라 더욱 건강합니다. 또한 농가 이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자연실록 동물복지’

사육부터 생산까지 동물 습성 그대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키워낸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닭고기입니다.



‘레트로 닭볶음탕용’

특유의 옛스러운 감성을 패키지에 녹인 신제품. 요리하기 좋게 깔끔하게 손질해 토막 낸 신선한 닭 한 마리가 담겨 있다.

“ 주주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문화로 ”

3월은 '봄'의 시작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로 바뀌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무적 관점'에서 작년의 결과물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작년을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한 주식회사는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승인을 받고 의견을 묻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주주총회는 1년간의 운영장부를 승인하는 행사가 주(主)가 되다 보니 연간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3월 말에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아무 때나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승인,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의 결정, 결산 등의 계산 서류의 승인, 합병보고의 승인, 회사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전회사채의 발행, 주식 및 현금의 배당,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등을 의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자격은?

주로 3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배당자격과 동일하며, 12월 마지막 주식거래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별도로 공시하는 '주주명부 폐쇄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2023년 12월 28일 기준 해당 기업 주식 보유자입니다.

주주총회 참석방법은?

삼성전자와 같이 큰 행사로 진행하는 주주총회가 있는 반면, 지방의 본사 공장 같은 곳에서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어떻게 참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참석방법은 직접 주주총회를 방문하는 방법과 전자투표를 통해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주주총회에 방문'할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주총회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총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참석하는 경우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직접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탁월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투표권이나 대리인 선임 등 권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과 같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걸린 주주총회는 1998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로 13시간 17분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장하성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여 한꺼번에 경영진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서 주주총회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게 끝난 주주총회는 2019년 5월 31일 있었던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물적분할하면서 조선업체를 거느린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열린 주주총회로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구조 조정을 우려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총장 점거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지자 주총 30분 전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단 3분 32초 만에 주주총회를 끝 마치는 데 성공한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1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지난달 2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 영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3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1주당 배당금 30원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승인과 권호상 사외이사의 중임, 2024년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주총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주주께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상회사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주주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주주총회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백유통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나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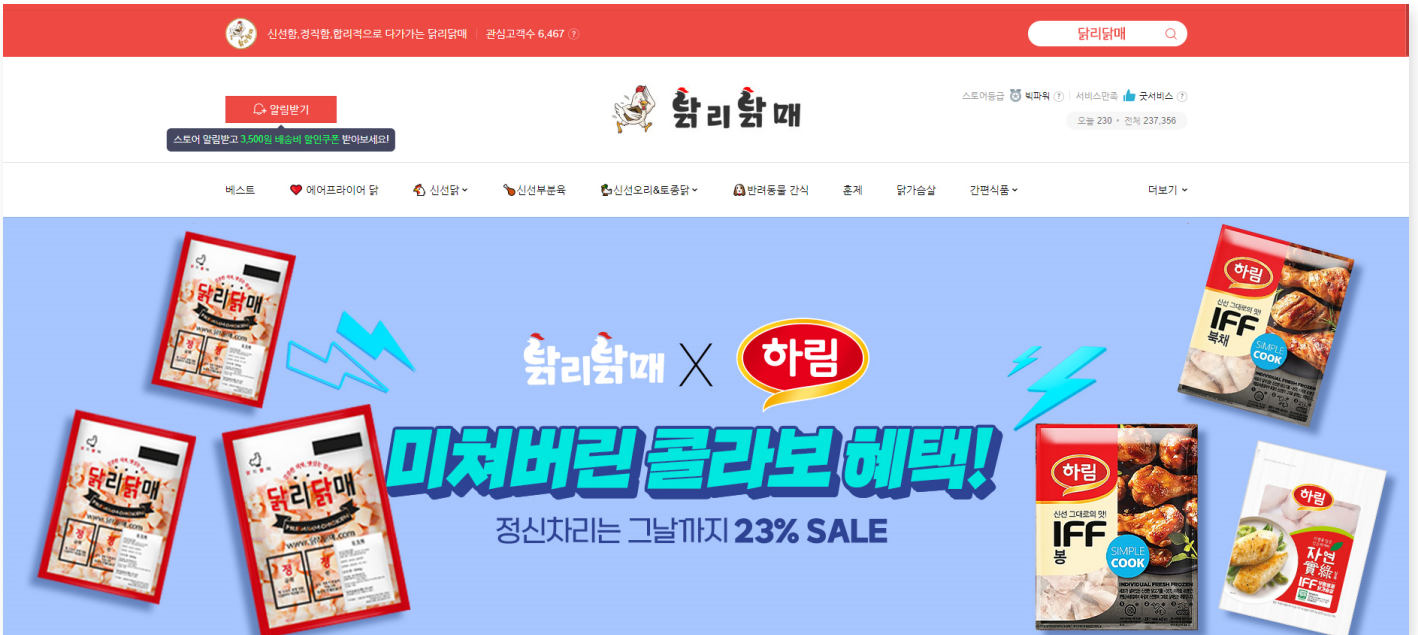
김보곤 대표

‘함백유통’의 시작

인천에는 스스로를 하림맨이라 부르는 김보곤 대표(51세)가 있다. 그는 2000년도에 하림에 입사해 유통팀부터 대리점팀까지 10년간 근무를 하였다.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인천에 대리점을 담당하며 지켜보다 언젠가 나도 대리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하였다. 이후 그는 하림에서 갈고닦은 지식이라는 칼과 34세라는 젊은 나이의 방패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고, 탄탄히 발판을 다져 3년 만에 사업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김대표는 당시 소외되고 있던 전통시장을 보며 눈이 번쩍였고 그 가능성에 심장이 뛰었다고 말했다. 2010년, 그렇게 함백유통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하림에서의 경험과 김대표의 경영철학으로 열심히 성장한 함백유통은 2023년에 하림의 대표 대리점인 프라임 대리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19명의 직원과 300여 곳의 거래처,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연 매출 90억을 달성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사업철학 ‘뿌리깊은 나무’

김대표의 사업 철학은 ‘뿌리 깊은 나무’이다. “뿌리가 깊어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는 또 한 번 하림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자신의 뿌리는 하림이며 하림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하림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양분 삼아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숨은 사업 철학이 하나 더 있다. ‘끊임없이 두드려라’ 김대표는 한 번 정한 업체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방문하고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김대표는 실제로 20번 넘게 방문한 업체도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하였다. “실행을 해야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일 뿐이고 목표를 세웠다면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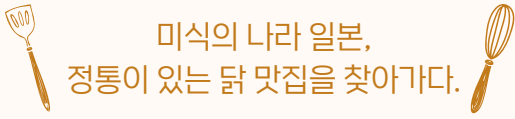
목표 '온라인 사업'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치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많은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오프라인 사업에 한계를 느낀 김대표는 온라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달리닭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달리닭매는 “많이 팔아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의미로 ‘박리다매’에서 인용하였고 “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림과의 콜라보와 자체 제품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달리닭매는 네이버와 쿠팡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네이버 브랜드관에도 입점하였다. 그의 올해 목표는 온라인 사업 확장을 통해 2023년 매출액 90억을 뛰어넘어 120억 달성하는 것이다. 김대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전문 인력 추가 채용 등 로드맵을 만들어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김대표는 자칭 하림맨으로서 10여 년 전 입었던 하림 점퍼를 입고 인터뷰에 나설 만큼 하림에 많은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런 그는 기업의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회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곳이며, 배움이 있으려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과 성취감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잘 참여하라. 그러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하면서 후배들을 응원했다.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줘서 고맙고 대표로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흉내 내는 자녀들의 모습에 아버로서 부족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보다 좋은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식의 나라 일본,
정통이 있는 닭 맛집을 찾아가다.

Miyazaki Food Quwanne

그간 무수히 많은 한국의 닭 맛집을 찾아다녔다. 치킨, 닭볶음탕, 닭갈비 등 닭을 이용한 요리가 무궁무진한 한국만큼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닭을 애정 하는 나라이다. 닭에 대한 전통이 깊기 때문일까 일본에 가면 닭을 이용한 요리와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이곳은 일본 신주쿠구 미야자키현 신주쿠역 근처에 위치한 가정식 맛집이다.

1층엔 '쿠완네'('모쭈록 맛있게 드세요'라는 뜻)라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1층 안쪽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미야자키현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가정식 식당이 보인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대기 줄이 길 수 있으니 구글맵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거나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식당은 '지도리(토종닭)'만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미야자키현의 독자적인 교배방식으로 개발한 '지도리'는 주로 숯불구이로 즐기는데, 부드러운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가졌다. 닭고기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고 육즙이 가득한 맛이 일품이며 엄격한 사육 조건에서 자란 탓에 고급 닭고기라 칭한다.



📍 Miyazaki Food Quwanne

일본 151-0053 Tokyo, Shibuya City, Yoyogi, 2 Chome 2 1 KONNE2 みやざき



닭을 이용한 일본 가정식 한상차림
(치킨난반(튀김), 오야꼬동(닭고기덮밥), 닭가슴살 회, 숯불구이, 후랑크소시지, 계란말이 등)



곁들임 메뉴
버섯 장아찌, 양배추 장아찌, 래디쉬 장아찌



치킨난반(튀김)
가라아게(일식 튀김)에 마요네즈와 달걀을 기본으로 한 타르타르 소스를 올려 얹어먹는 순살 닭튀김



오야고동(일본식 닭고기 덮밥)
닭고기의 훈연향과 쫄깃한 식감이 부드러운 달걀과 어우러진다.



닭가슴살 회
얇게 저민 닭가슴살 회, 결부분이 살짝 구워져 나와 더욱 쫄깃하다.



숯불구이
4~5달 정도 우수한 환경에서 자란 미야자키현 지どり 품종의 닭으로 조리한 메뉴이다.

자리에 앉고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밑반찬(버섯장아찌, 유자 향이 베인 양배추 장아찌, 무)은 침샘을 자극하며 식욕을 돋구어 준다. 메뉴는 오야고동, 닭가슴살 회, 프랑크 소시지, 치킨구이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정평으로 소문난 메인 메뉴인 ‘치킨난반 정식 세트’를 필수로 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미야자키현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치킨난반’은 바삭하게 튀겨진 가라아게(일식 닭튀김)에 마요네즈와 달걀을 기본으로 한 타르타르 소스를 듬뿍 올려 밥 위에 얹어먹는 순살 닭튀김이다. 외형이 일본 돈가스를 닮았지만, 재료나 맛이 다른 음식이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소리지만 부드러움이 그 바삭함의 식감을 뒷받침해 준다. 치킨은 많이 익히면 질기기 마련인데 생후 6개월 된 영계의 닭가슴살만을 사용해서 그런지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다. 입에 넣으면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감식초 향이 후각을 자극하고 부드러운 야채 타르타르 소스가 풍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중간쯤 먹고 같이 나온 레몬을 뿌려 채소와 곁들여 먹어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아마 ‘튀김은 느끼하다’라는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음식 ‘오야고동’은 달짝하게 조린 닭고기와 부드러운 달걀을 얹은 일본식 닭고기 달걀덮밥이다. 붓긋하게 솟은 노른자를 톡 터트려 밥과 코팅하여 한 입 가득 먹어보면 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노른자의 고소함과 달걀의 부드러움, 그리고 훈연된 닭고기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 어느 하나 빠트릴 것 없는 맛이다.

얇게 썰려 나온 닭가슴살회는 함께 나온 라임을 한 바퀴 쪽 뿌려 상큼함을 더하고 쪽파를 한가득 올려 같이 먹어야 한다. 정말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회는 전혀 비리거나 딱딱하지 않고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치킨구이는 불향으로 먼저 기선제압을 한다. 불향은 코에서 시작해서 혀로 넘어와 미각을 일깨워준다. 두툼하고 탱글탱글한 육질의 쫄깃함이 매우 매력적이며 닭구이 표본의 맛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사이드 메뉴인 육즙 가득한 프랑크 소시지와 달콤한 계란말이 한 입은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녹아내리게 해준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찾아간 오늘의 일본 닭 맛집은 ‘성공’이었다.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이었고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예민함, 정교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이곳 외에도 닭을 이용한 음식이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도 설렌다. 요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처럼 일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인 것 같다. 일상에 지친 그대들도 심을 찾아, 미식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사내기자 | 장민 사원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팀’

환경관리(익산)



정청호 차장(팀원)
환경관리(익산)총괄 업무



정종건 대리(팀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고준석 사원(팀원)
수질 관리



이정관 사원(팀원)
대기 관리

환경관리(정읍)



박정모 팀장
환경관리 총괄 업무



김형국 차장(팀원)
환경관리(정읍)총괄 업무



임형준 과장(팀원)
수질, 폐기물 관리

환경관리(남산)



김도온 과장(팀원)
제 2공장 환경관리 총괄업무

①

**우리 회사의 방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환경관리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과장

환경관리팀은 제조회장의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어하는 지구방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을 통해 하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과장

하림의 환경관리팀 사업장은 익산, 정읍, 낭산 총 3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설 및 기계 설비의 용량에 따라서 업무가 나뉘며 그에 맞게 구성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일 수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의 용량은 낭산 공장 약 200~500톤, 정읍 공장 약 3,000~5,000톤, 익산 공장은 약 8,000~11,000톤입니다.



고준석 사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수자원 관리, 폐수처리, 폐기물 관리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지역과 사업장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②

하림이 ESG 경영을 선도함에 따라 책임이 더욱 높아진 부서 중 하나인데,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요?



임형준 과장

폐수 정화 공정 중 발생하는 물은 청소수 등의 용수로 재활용, 물 낭비 최소화, 누수 방지 등의 용수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마크에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하는 친환경 녹색소비 및 장려 활동을 통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과장

저희 낭산 공장은 100% 재활용 가능한 폐합성수지를 별도 분리보관하여 무상 배출을 하고 있으며, 주 1회 생산현장 패트rollers를 통해 수자원 절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진행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최근 4년간 기본배출 부가금 ZERO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③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인 ‘혐기성 소화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고준석 사원

‘혐기성 소화조’는 생산 및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물(폐기물)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는 수질오염물질 중 하나인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환경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바이오가스가 기존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ESG 경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과장

현재 파일럿 설비(대규모 공장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공정, 설계, 조작 등 자료를 얻고 검토하기 위해 만드는 소규모의 설비)를 통해 사업장 적용 방안을 설계 중입니다.

④

환경 관리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임형준 과장

환경법 준수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환경업무의 거의 99.99% 이상이 환경 관련 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을 계획할 때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사원

물 환경보전법, 대기 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들이 매년 개정 및 강화됨에 따라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⑤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김도연 과장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몇 년 전 애지중지 관리하던 폐수처리장의 수 처리를 해주는 미생물이 사멸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미생물 관리는 산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폐수처리장의 폐수 기질 조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팀원들이 동일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

2024년의 청사진과 이를 함께할 팀원들에게도 한 마디 들려주세요.



임형준 과장

저희 팀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힘든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며 힘내시고 한 팀으로서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도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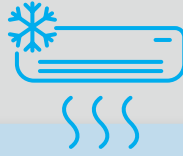
24년 하림 제2공장 환경담당자로서 하림의 HBH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없고 법적 위반사항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비전 달성에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아울러 팀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준석 사원

2024년은 ESG 경영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부서 특성상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재밌는 회사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파이팅~

냉방시설 vs 난방시설, 인류에게 더 도움 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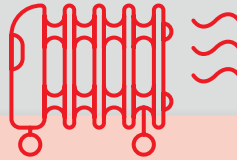
냉방시설

고은화 사원-식품안전1팀

냉방시설! 냉방시설을 대체할 것은 없다.

저는 냉방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위에는 불이라는 인류의 발견이 있어 난방시설이 존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추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냉방시설을 대체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방시설



정용호 대리-SCM팀

난방시설! 난방시설에 한 표 주겠습니다.

한여름의 더위는 나무 그늘이나, 건물 안 등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한겨울의 추위는 건물 안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피우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하기에 공룡이 멸종한 것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요?

신재숙 대리-온라인1팀

난방시설! 건강 문제에선 난방시설이 더 도움이 된다.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어린이,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냉방보다 난방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난방시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철 사원-총무팀

난방시설! 난방시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설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특정 상황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난방시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길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더운 기후 조건에서는 어떻게든 잘 수 있지만, 추운 기후에서는 영원히 자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설득이 좀 되었나요? 만일 틀렸다고 생각할 시 당신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김혜진 사원-영업지원팀

난방시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난방은 중요한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추운 지역이 많기도 하고, 난방 없이는 겨울철에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거리로 쓰이는 농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난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난방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유지하고,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준 사원-설비구매팀

난방시설!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은 난방이다.

아파트 분양 시 난방시설은 모든 가구에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지만 냉방시설은 옵션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냉방보다는 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끈한 맛으로 이겨내는 춘곤증 몸칠 입맛 돌아줄 매콤한 닭고기 제품 추천!

기온이 올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을 느끼고 입맛이 떨어지는 봄철이다.
우리 회사가 나른한 봄날 입맛을 돌아오게 할 매콤한 닭고기 제품을 추천한다.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는 번거로움 없이 익히기만 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로 엄선했다.



대표적인 매운 음식 중 하나인 닭발. 우리 회사의 '직화 무뼈 닭발' 2종은 먹기 좋게 뼈를 발라낸 신선한 닭발에 매콤한 특제 소스로 양념한 뒤 직화로 구워 화끈한 불맛을 살렸다.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리면 포차에서 맛볼 법한 닭발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직화 무뼈 닭발'은 깊고 진한 숯불향이 특징이며 '직화 무뼈 국물 닭발'은 맵고 달달한 국물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대파, 콩나물 등 사리를 추가하거나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 푸짐하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 뜨끈한 국물 요리가 당긴다면 '마늘 듬뿍 닭볶음탕'을 추천한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마늘을 듬뿍 넣어 알싸한 풍미를 살린 제품이다. 부위별로 손질한 닭고기 한 마리와 당근, 감자, 양파 등 신선한 채소, 특제 소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냄비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끓이면 시우너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인 닭볶음탕이 완성된다.

부드러운 닭다리살이 듬뿍 들어간 매콤한 면요리인 '불닭치면', '핵불닭치면' 제품도 있다. 100% 국내산 닭다리살과 특제 불닭 소스, 사리면으로 구성된 밀키트 제품이다. '불닭치면'은 맵기 1단계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달달하면서 매콤한 것이며, '핵불닭치면'은 맵기 3단계로 맵고 수러면 도전하기 좋은 화끈하게 매운 맛이 특징이다.



핵불닭치면



직화무뼈닭발



마늘 듬뿍 닭볶음탕

News01 제1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열려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3개 안건 원안 가결



우리 회사는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이 이뤄졌다.

또 ▲제13기(2023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3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주총회 의장인 정호석 대표이사는 “주주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0여 년 간 축산 전문기업에서 식품회사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 하림은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새로운 동물복지형 스마트팍토리를 본격 가동한 이후 최상의 품질을 가진 닭고기와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가공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1 제1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열려

2 하림과 농식품부, 수출 확대 방안 논의

News02 하림과 농식품부, 수출 확대 방안 논의

수출 성과 및 향후 수출 계획, 애로사항 청취 등 이어져



우리 회사는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관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일행이 전북 익산 본사를 방문해 삼계탕 등 수출 제품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재한 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닭고기 가공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담회 자리에서 하림의 삼계탕 수출 성과와 향후 수출 계획,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 2월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준호 가공식품대표는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삼계탕 검역 협상이 타결된 점은 향후 시장

다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하림은 EU 삼계탕 초도수출 준비에 한창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기준과 세무 사항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림산업 한상명 공장장은 “쌀라면 등 가공제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기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관재한 실장은 “수출 마케팅,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유통 바이어 발굴 등 지원과 관심은 물론, 정부 간 검역 이슈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화 제품 개발, 주요 유통 매장 입점 확대 등 신시장 개척 노력과 동시에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4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미국 시장 삼계탕 수출의 3/4를 맡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 전체 삼계탕의 수출액 기준으로 16.6백만불 중 (주)하림이 7.4백만불(44.5%)을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삼계탕 수출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삼계탕뿐만 아니라 라면 제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3

4

5

6

7

8

9

10

11

12

News03 가공식품 ‘퍼스트 대리점’ 출범식 개최

600여 개 대리점 중 1호점 선정



우리 회사가 가공식품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달 7일 익산 왕궁에 위치한 (주)미담 대리점에서 ‘퍼스트 대리점’ 1호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공식품 퍼스트 대리점’은 우리 회사 가공식품 사업과 퍼스트 파트너가 되어 유통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대리점으로, 총 600여 개의 대리점 중 하림 제품 취급율과 매출이 가장 높은 (주)미담 대리점이 퍼스트대리점으로 선정되었다.

퍼스트 대리점으로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장려금 ▲냉동고 50% 지원 ▲순회판촉사원 지원 ▲제품 카탈로그 제작 ▲유니폼 제공 ▲차량 도색 ▲명찰·명함 제작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하림은 첫 퍼스트 대리점을 선정한 만큼 상반기에는 1호점 안정화에 힘을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남·경상지역에 2,3호점을 선정하고, 2025년 이후로는 지방 주요 도시 거점을 확대해 전국에 총 11개점 운영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은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미담과 함께 더 많은 협력과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협업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오늘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림은 대리점을 비롯해 농가, 협력업체, 고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상생펀드를 조성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채용 지원에도 나서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기자 | 송다운 사원

News04 삼기부화장 태양광 발전 준공식 열려

연간 474KWh 신재생에너지 생산



우리 회사가 지난달 7일 익산에 위치한 삼기 부화장에서 ‘태양광 발전 준공식’을 진행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본사 가공식품 공장 옥상에 9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것에 이어 이번에 삼기·김제·고창 부화장에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 사업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준공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과 (주)에이원E&H 김윤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방식을 확립하여 2050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총 473.56KW 규모로 생산 가능한 연간 전력은 약 62만KW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8.728tCO2 이

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사 가공식품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합하면 연간 약 891.308tCO2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액의 탄소세 등 각종 패널티를 받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모든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하림이 RE100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친환경 바이오매스 기포유동층 보일러 등 대기 환경개선을 목표로 폐목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있으며, 줌깡 행사와 나무 식재 캠페인 등 임직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친환경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사내기자 | 송다운 사원

- 1
- 2
- 3 가공식품 ‘퍼스트 대리점’ 출범식 개최
- 4 삼기부화장 태양광 발전 준공식 열려
- 5
- 6
- 7
- 8
- 9
- 10
- 11
- 12

News05

민·군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육군훈련소와 MOU체결..군 장병 위해 삼계탕 기탁



우리 회사는 지난달 28일 논산 육군훈련소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 장병을 위해 삼계탕 11,000봉(1억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호석 대표이사, 육군훈련소 최장식 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공감대 확산과 장병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정립, 민·군 유대강화 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육군훈련소는 하림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부대 견학, 변화된 병영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하림은 장병들의 건강한 식문화 선도를 위한 영양 교육, 식품위생, 품질관리 지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하림 공장견학 참여 등이다. 특히 하림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식품산업의 이해를

위해 하림 공장 투어 프로그램인 HCR(Harim Chicken Road) Tour에 장병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닭고기를 생산하는 최첨단 도계가공시스템과 건강하고 차별화된 가공 공정을 직접 둘러보고, 맛보고,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삼계탕이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최장식 소장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상호협력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 등 여러 방면으로 민·군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 1
- 2
- 3
- 4
- 5 민·군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 '아침머고' 등 사업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에도 앞장
- 7
- 8
- 9
- 10
- 11
- 12

News06

하림-익산교육청-월드비전, 교육소외계층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아침머고' 등 사업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에도 앞장



우리 회사가 지난달 15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교육소외학생들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와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일에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한층 더 강화해 갈 방침이다.

협약 내용은 △아침머고(아침조식지원사업, 위기아동지원사업) △꿈지원(꿈지원사업, 꿈날개클럽) △인성교육(인성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인성탐구생활, 희망캠페인) △나눔실천(나눔실천을 위한 지구촌 희망명서그리기 캠페인, 글로벌 친구 맺기)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상호 협력

해 추진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아침머고 조식지원사업비와 후원 물품에 사용될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월드비전이 담당하게 된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월드비전과 학교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호석 대표이사는 “성장기 아이들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하겠다”며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은 “지역사회가 한 뜻을 모아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되어 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우리 회사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침머고 조식지원 사업은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식사와 정서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올해 익산지역 이리초등학교, 익산초등학교, 이리부천초등학교 총 3곳에 지원금 27,600,000여원을 지원했으며, 6년간 지원한 누적 금액은 약 1억 5천 870만원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피오봉사단 활동, 연말 희망 나눔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위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News07

하림,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수상 냉장/냉동육 부문 22년 연속 1위 기념 이벤트 진행



우리 회사는 지난달 2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산업브랜드파워(K-BPI) 1위 기업 인증식에 참여했다. 올해로 26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는 냉장/냉동육 부문에서 22년 연속 1위의 영예를 누렸다. 우리 회사는 올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종합점수에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였다.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POWER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시장을 리딩하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 시한 번 다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여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매장에서 하림의 모든 제품 구매 시 금액 단위마다 닭가슴살햄 참과 참라면을 증정하는 이벤트부터 온라인몰에서 하림제품 브랜드파워 1위 기념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이번 브랜드파워 냉장/냉동육 부문 1위를 수상한 가공식품사업 박준호 대표는 “22년 연속 1위를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이 하림을 꾸준히 사랑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생과 안전을 우선시 하며 최고의 맛으로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내기자 | 김동휘 대리

1
2
3
4
5
6
7 하림,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수상

News08

스마트팜 분야 개발 위해 힘써 박진언 차장,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자문위원 위촉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 사육3팀 박진언 차장이 지난달 6일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농업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위기 등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솔루션, 차세대 융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2,3세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사업단은 최근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농·축산 및 정책·사업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했다. 우리 회사 박진언 차장은 가금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6일 진행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스마트팜 분야 정책 발굴, 사업화 지원,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육3팀 박진언 차장은 “스마트팜은 우리 축산 농가들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기술이다”며 “자문위원으로서 스마트팜의 개발과 홍보를 위해 힘쓰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8 스마트팜 분야 개발 위해 힘써
9
10
11
12

News09

사육의 중요한 첫 단추 잘 꿰어 원종계 병아리 지난달 10일 사전 점검



우리 회사 종계팀이 원종계 병아리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종계부화사업부 종계팀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원종계 병아리를 맞이했다.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하는 첫 단추인 원종계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항공편 도착 시 현장 소독 등 준비를 먼저 진행한다. 비행 전날 태어나 12시간 넘는 긴 시간을 날아온 병아리가 공항에 도착하면, 폐사한 병아리가 없는지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면 병아리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육

성 농장으로 이송한다. 병아리는 육성농장에서 우리 회사의 사양 프로그램에 맞게 세팅된 환경에서 20주 동안 사육된다. 종계부화사업부 이형준 사업부장은 “사육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첫 단추인 원종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요한 점검 단계를 마쳤다”며 “원종계 병아리 상태가 좋았던 만큼 태어날 종계와 육계의 품질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종계팀은 연 3회 진행되는 원종계 도입과 품질 관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사내기자 | 강승현 사원

News10

안전 우수사례 시상식 열어 잠재위험 발굴 등 기여 임직원 표창 수여



우리 회사는 지난달 18일 시설·안전부문 및 긴급조치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근 잠재위험 발굴 활동, 시설물 안전 조치 기여, 긴급조치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해 표창장이 수여됐다. 안전보건팀 이동희 사원은 제2주차장 동선에 대한 잠재위험요소를 발굴해 태양광 가로등 설치, 경사로 아자매트 설치, 차량·보행자 안전구획 경계 표시 등을 진행하게 했다. 이를 통해 인사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한데 대해 표창을 수상했다. 총무팀 오지수 과장은 사내 인도와 도로 경계 지점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 지역을 찾아 고정식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무단횡단을 사전 차단한데 기여했다. 공무팀(가) 김세령, 박성민, 차한중 사원은 야간 근무 중 원료 5창고 천장 누수를 발견했다. 누수 배관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통해 천장 붕괴사고 및 피해를 최소화해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을 수상한 공무팀(가) 차한중 사원은 “이번 긴급 조치를 통해 야간근무 시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패트롤에 대해 좀 더 유념하며 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 1
- 2
- 3
- 4
- 5
- 6
- 7
- 8
- 9 사육의 중요한 첫 단추 잘 꿰어
- 10 안전 우수사례 시상식 열어
- 11
- 12

News11

교류와 교육 시간 통해 역량 키워 신규 반장, 부서장 등 120여 명 교육 진행



우리 회사가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18일, 25일 하림 신규반장과 동아리리더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리더 역량향상과정이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현장 리더십 역량 강화, 공감·소통·화합의 일터 조성 기여를 위해 대공감 현장소통, 동기부여 및 리더십 발휘, 아로마테라피 등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달 13일과 20일 팀장급 부서장 60여 명이 참석한 팀장급 부

서장 역량향상과정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됐다. 전략적사고와 분석, MZ세대를 이끄는 코칭 피드백 등의 교육을 통해 팀 장으로서 전략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함양하고 세대통합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현장 직원 간,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리더들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실행력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혁할 계획이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News12

롯데리아, 전북인재개발원 등 단체 HCR투어 이어져 3월 한 달 간 2,000여 명 방문



우리 회사 'HCR(Harim Chicken Tour) 투어'로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확인하는 재미가 알려지면서 단체 견학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가공식품사업 우수협력업체인 롯데리아 경영진, 28일에는 롯데리아 가맹점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투어가 진행됐다. 투어에 참여한 롯데리아 임원진들은 "롯데리아와 하림은 2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하면서 우수협력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롯데리아에서 사용하는 하림 닭고기의 차별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롯데리아, 멕시카나, 페리카나, 대명푸드 등 협력업체의 방문과 함께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이화여대 지리학과, 목포대 식품공학과, 부산관광 교 등 단체 견학이 이어졌다. 홍보팀 조미희 팀장은 "3월 한 달 동안 2,000여 명이 HCR 투어를 통해 하림 닭고기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확인했다"며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남다빈 사원

- 11 교류와 교육 시간 통해 역량 키워
- 12 롯데리아, 전북인재개발원 등 단체 HCR투어 이어져

승진을 축하합니다!



김화영 사업부장 B2B사업부장실(가) “저의 승진은 그 동안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김일도 실장 마케팅실장실(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루어 내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건 차장 물류팀(신)익산 “채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생활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심아름 과장 네이처멜리사업부장실 “이번 승격으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인 대리 온라인1팀 “승진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회사의 허리 역할을 맡게 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부장	김화영 B2B사업부장실(가)	유민 수급조정팀		
부장	김일도 마케팅실장실(가)	문성국 고객만족팀	박정현 마케팅실장실(신)	
	염윤성 법무개선팀	윤민 회계팀	이재영 고객지원팀	
차장	곽종현 디지털혁신팀	김동원 경남지점(신)	노영길 네이처멜리사업부장실	박상훈 외자팀
	박형남 품질관리(김제)	소경선 기획관리부장실(신)	이상준 공무팀(익산)	채건 물류팀(신)익산
기장	이정선 공무팀(익산)	전승철 생산팀(정읍)	최윤범 생산팀(정읍)	
과장	김병준 생산지원팀(정읍)	김승겸 고객지원(김제)	김지연 총무팀	김치연 유통영업2팀
	김해진 안전보건팀(정읍)	김현인 급식팀(가)	문지영 안전검사팀	서문선 기획인사팀
	송재훈 내자팀	심아름 네이처멜리사업부장실	윤태웅 운송지원팀	이한힘 생산팀
	전재현 식품안전2팀(가공)	조영재 물류팀(가)	주홍석 사육1팀	허선진 농협팀
기감	고광민 공무팀(정읍)	김도윤 환경관리(남산)	김준섭 바이오1팀	서덕만 공무팀
	양민욱 공무팀(익산)	이인재 생산팀(정읍)	조병주 바이오2팀	
대리	기지연 회계팀	김기범 총청영업팀	김도훈 신선마케팅팀	김송이 식품안전분석팀
	김현민 생산지원팀(익산)	박윤진 디자인팀	방현권 외식팀	윤여운 온라인2팀
	이경원 네이처멜리수도권운영팀	이나래 네이처멜리사업부장실	이동욱 생산1팀(가)	이상영 물류팀(가)
	전대한 물류팀(신)익산	정지윤 디자인팀	최지인 온라인1팀	
기정	김기범 공무팀(가)	김용태 공무팀(정읍)	노지환 공무팀(가)	송영택 공무팀(가)
	이경민 공무팀(정읍)	이민수 공무팀(익산)	이상진 공무팀(익산)	

눈으로 보는 하림

2024년 3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 신선마케팅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은 지난달 5~8일 BIG SIGHT에서 개최된 FOODEX JAPAN 2024에 참가했다.



우리 회사 정음공장이 지난달 13일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공장 내·외곽, 공장이 위치한 북면 3산업단지 일대를 가졌다.



지난달 14일 하림그룹 통합PI 프로젝트 2차 Champions Day가 진행됐다.



지난달 19일 사장님과 함께하는 한끼 DREAM 행사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궁금중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 기획조정실 유영삼 실장, 사육2팀 강병권 팀장, 식품안전1팀 김경선 팀장 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 우리 회사 직장선교회인 신우회 및 천사합창단 회원들이 '예수님 부활의 기쁨,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임직원 3,000여 명에게 훈제란을 전달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0313
경주김씨 종친회



0313
한국경영인증권 심사위원



0318
부서관학교



0315
노랑동담



0321
이화여대



0322
쿠팡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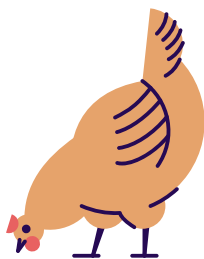
3월에는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 4-H본부, 익산청년시청, 부서관학교, 이화여대 지리학과, 참마음 직업재활시설, 일반인 등 총 2,000여 명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달의 Quiz

퀴즈 풀고
선물세트 받자!



닭이 작은 옷을 입으면?



힌트!
세글자

지난호 정답

북채

제 214호 당첨자

이*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우 고양시 덕양구
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섭 군산시 나운로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커다란 통닭다리를
두 번 훈연하여
육즙 가득한

토마호크 치킨다리



커다란 통닭다리가 한손에 가득
두 번 훈연하여 육즙 가득
100% 국내산 닭다리살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 063-860-2422 | www.harim.com